

OFFICE DESIGN COMPANY



PHILIPS
NEXON
NEOWIZ
KAKAO HQ
CESCO TOUCH CENTER
SE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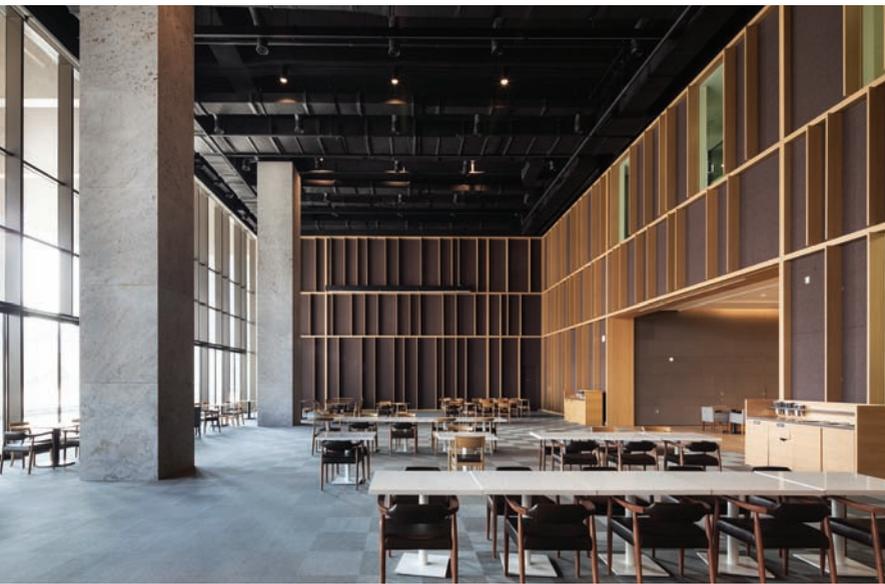
DAWON

OFFICE
DESIGN
COMPANY



자료제공 DAWON (02)3468-5800

다원의 통합된 공간 서비스는 공간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과 공간, 감성과 기술, 조직과 개인, 경험과 비전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또 하나의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AWON 5 Ways

- D**ream 상상 속의 꿈을 실현
- A**chievement 기대 이상의 솔루션 제공
- W**orth 창조적인 공간구현
- O**pen Mind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
- N**ature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 창조





조서윤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대학원 인테리어 디자인학과를 졸업하였다. 2005 명가명인상 수상, 2014년에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로 골든스케일디자인어워드 황금스케일상을 수상했다.

2016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우수상" 수상

2014 골든스케일디자인어워드 황금스케일상을 수상

2005 명가명인상 수상

1995~ 현재 다원디자인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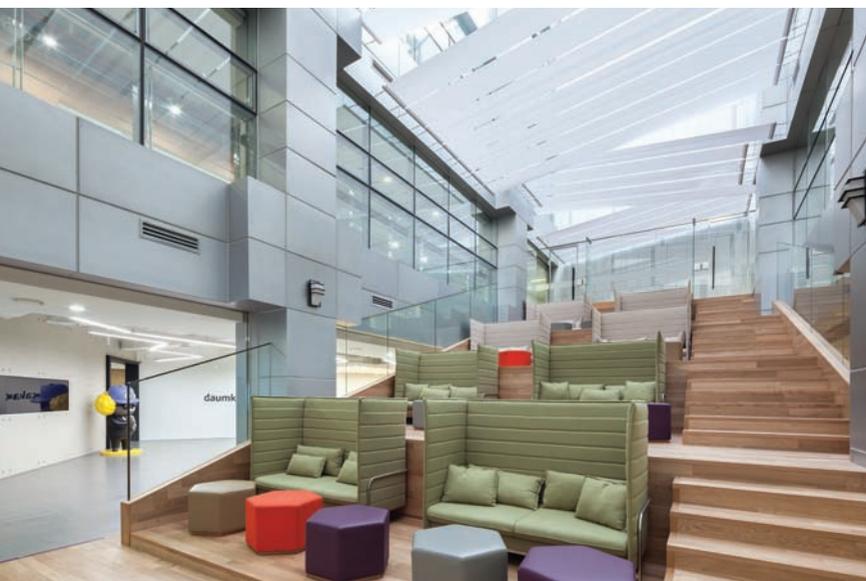
1991~1995 현대건설

1989~1991 Keiser Associate (NY)

1987~1989 Stevens & Wilkinson Inc.

1985~1987 Bass & Bass Ltd.(Florida)

DA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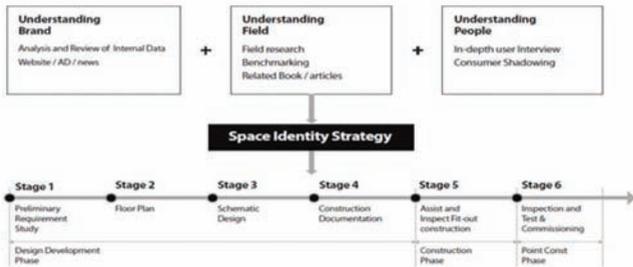
Smart Work = Smart Enterprise

스마트 워크란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업무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성과중심 관점에서 시간, 공간, 프로세스 등 일하는 방식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창의지향 업무를 창출하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 혁신 운동이라 할 수 있다. Smart Work Framework 진단을 토대로 스마트워크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똑똑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Work Diet, Mobility Innovation, Space Flexibility, 창의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Work Creativity, Work Weight, IT Infra의 기획을 통해, 스마트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낸다.



DESIGN PROCESS

A Group of Strategists With a Very Different Perspective



SERVICE VALUE PROPOSITION

Dear ALL Wonders of New Experience By Space Design. IT'S DAWON.

이러한 스마트 워크 개념을 바탕으로 미래셋 프로젝트는 유연한 공간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계획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빌딩 컨디션을 잘 분석하고 살리도록 설계하였다. 조닝에 따른 분리로 각 업무성격을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그러면서도 각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연결을 용이하도록 동선을 계획했다. 미래셋 본사는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는데, 이를 교집합의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여 중성적인 공간성격을 부각시켰다. 이는 트레이딩을 위한 업무공간에 잘 드러난다. 트레이딩 센터와 복합 공간을 커다란 유리월을 가운데 두고 물리적으로 구분하지만, 시각적으로는 개방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업무 형태에 따른 가구 배치와 소음이나 조도까지 철저히 계획되었다.

ISSUE #1

Separation in Block

ISSUE #2

Easy Access to Support

ISSUE #3

Identity
Value @ Center 1
Space

Scenario #1

Space 1 with Big Window
Window into Trading Floor

Scenario #1

Space 1 with Big Window
Window in window

5th FL. Block Plan

West Zone : Director (1) + 본부장(1) + Staff(200)
East Zone : Director (1) + 본부장(1) + Staff(150)
Staff : 362 seat

5th FL. Trading Floor/ Multi-Purpose Zone

Lighting Ventilation Soundproofing

OFFICE
DESIGN
COMPANY

→ 필립스 PHILIPS

설계 다원디자인 / 남용식, 남혜원
시공 다원디자인 / 이태웅, 박준서
위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27 T타워 24F~28F
면적 3,500㎡
바닥 Wood Flooring
벽체 paint
천장 VP,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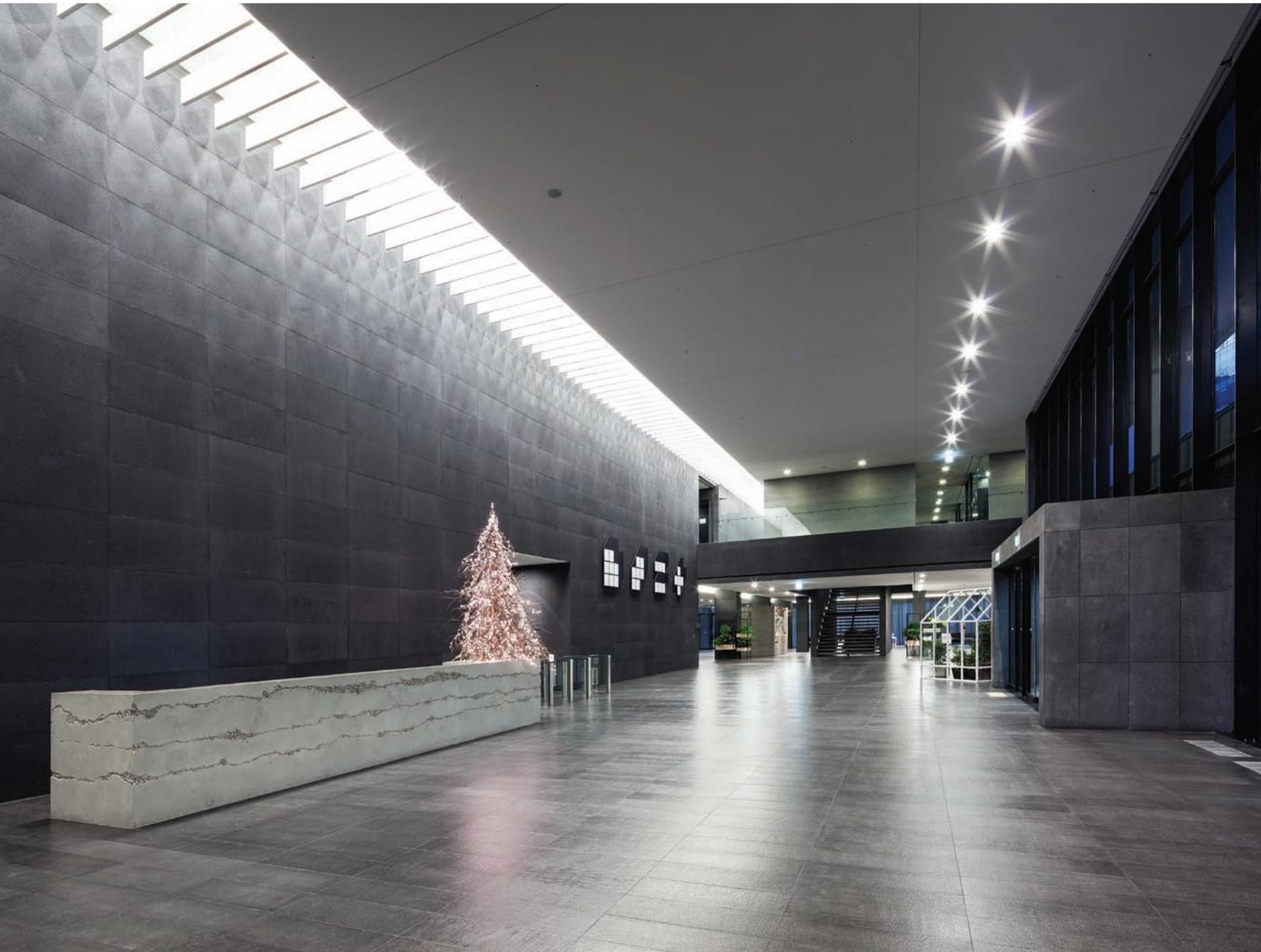
남산 T타워 최상부 4.5개 층으로 본사를 이전한 필립스는 헬스케어,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및 조명 분야의 의미 있는 혁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각적 기술기업이다.

디자인 목표는 공간에 필립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오피스가 부서별로 고립되고 Cell 단위로 분화되어있는 것에 반해 새로운 오피스는 개방성, 공간의 유연성, 경험하는 공간에 주안점을 두었다. 모든 공유 공간 (Public Communication), 교육, 소름 등을 리셉션과 함께 통합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각 공간의 개폐를 통해 유연한 크기와 기능을 갖도록 한다. 오픈 오피스의 개방성을 주안점으로 삼되 집중이 필요한 때 그에 상응하는 기능을 갖는 포커스 존이나 소규모 컬래버레이션 존의 활용을 통해 개방과 집중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프라이빗 오피스를 최소화하고 좋은 뷰를 갖는 공간들은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컬래버레이션 존으로 활용, 공간의 위계를 없애는데 주력했다.

OFFICE
DESIGN
COMPANY

→ 넥슨 NEXON

설계 다원디자인 / 조서윤, 남용식
시공 다원디자인 / 이철희, 이철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7 B6F~10F
면적 18,000㎡
바닥 석재, 우드플로링
벽체 석재
천장 VP, 바리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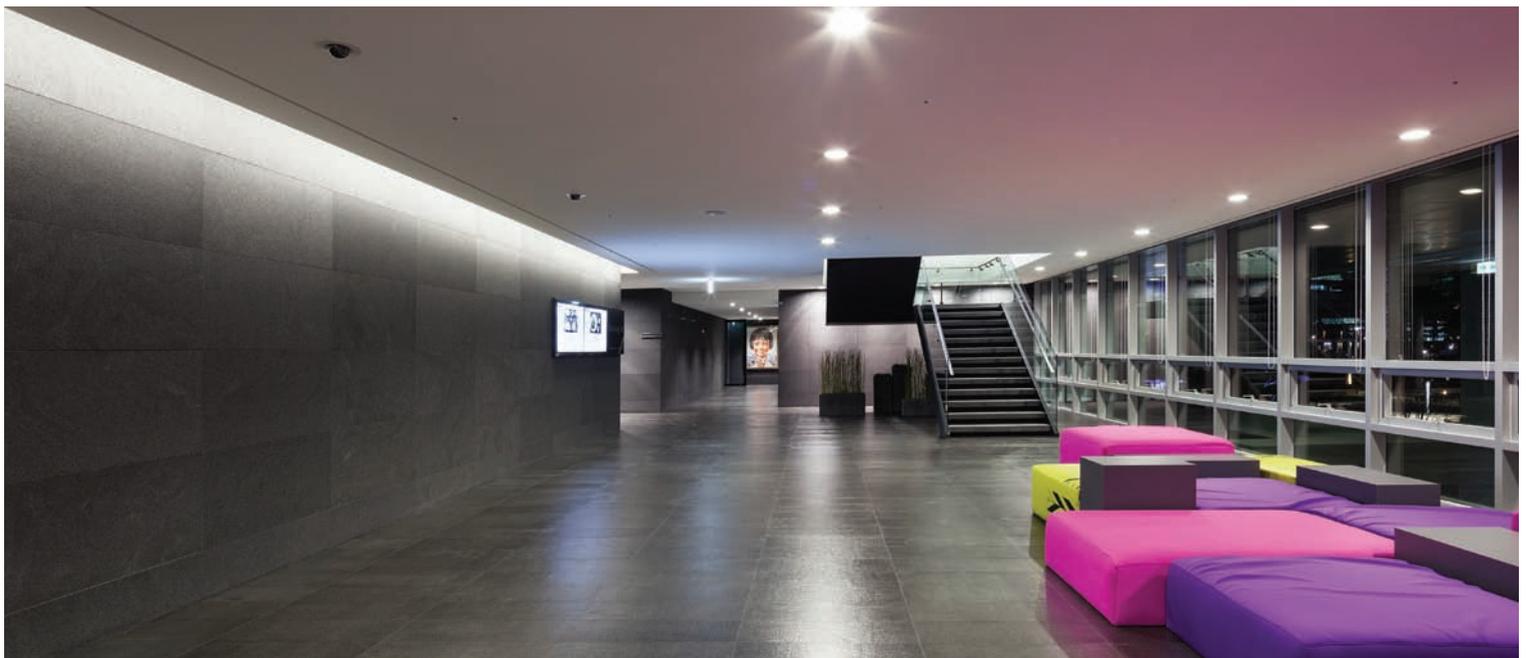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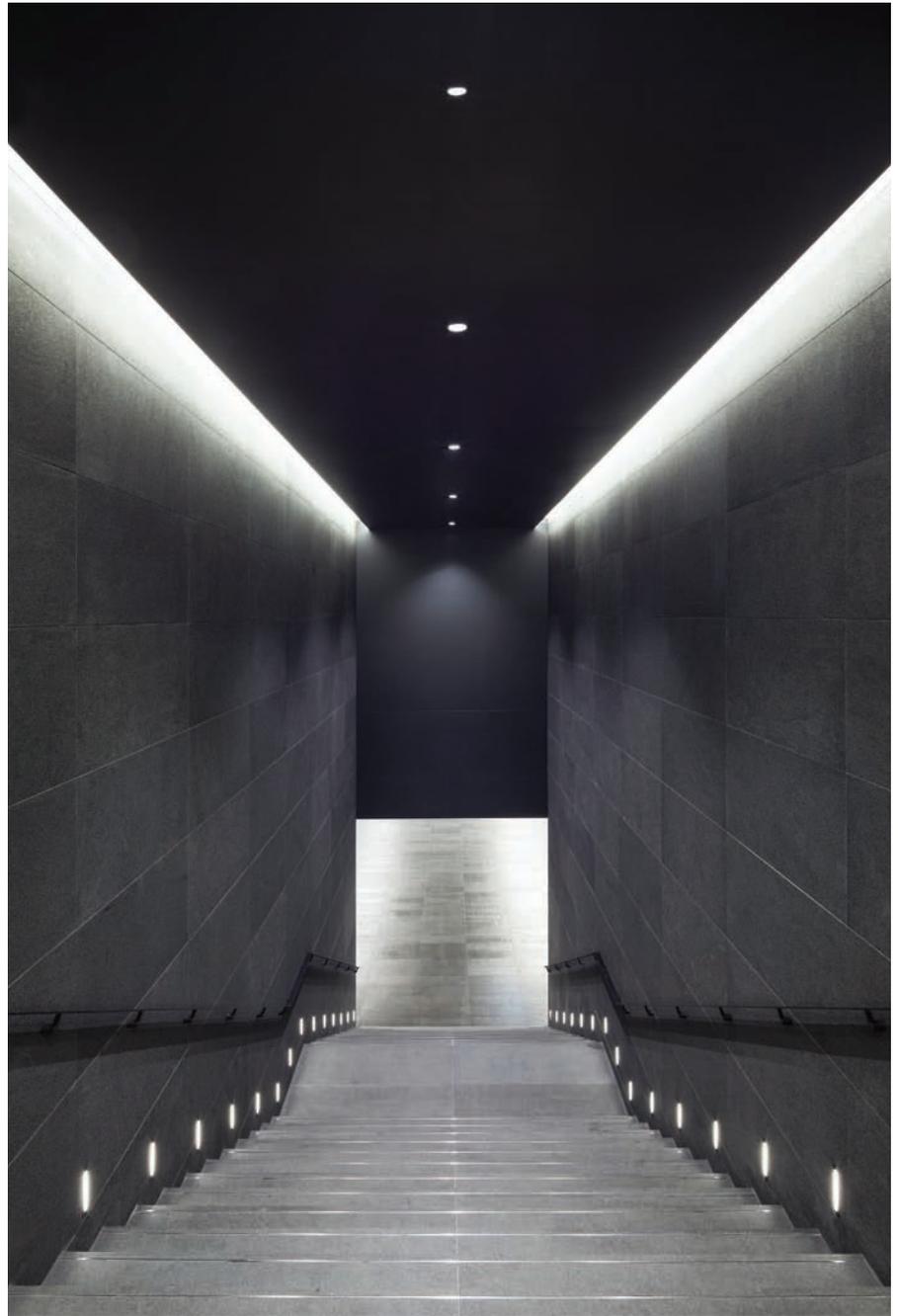
넥슨 판교사옥의 디자인의 출발은 게임 회사의 일반화된 특성인 '맹목적인 재미의 추구'와 차별화되는 기반을 갖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비밀상적인 오버스케일'과 '침묵하는 공간'이라는 두 가지 대전제가 바탕이 되었다.

건물을 들어서면서 대면하는 Black의 바닥과 벽면의 석재는 떠들썩한 도심의 외부와 차별화되는 침묵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외부의 자연광과 루버를 통해 드리우는 인공조명을 위한 빛의 캔버스로서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빛의 그림을 드리운다. 전체의 수직적 공간 프로그램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된다. B1~3F은 공연장, 로비, 라운지, 식당, 카페 등의 공적 영역으로, 4~11F은 오픈 오피스와 직무실, 회의실 등의 사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려하고 표피적인 디자인을 배제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이를 위해서 4가지의 core issue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첫째, 업무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회의시설 등과 같은 공용 시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였다.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규모 및 기능이 세분화되어 배치되었다. 가장 느슨한 단계의 오픈 카페에서부터 캐주얼한 회의공간(Casual meeting space), 커뮤니케이션 허브(Community hub), 시청각 시스템이 갖춰진 다목적 홀(AV equipped function roo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을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둘째, 외관상 가장 상징적인 디자인의 요소로서 'Floating Stair'가 적용되었다. 수공간 위에 유리계단으로 계획되었던 초안이 많은 논의를 거쳐 현재의 부유하는 석재계단으로 정리되었다. 폭이 3M나 되는 육중한 석재 계단이 최소한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가볍게 부유하는 모습은 석재라는 물질이 중력을 거스르는 구조적 해학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계단 전후의 공간이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전체 로비 공간이 하나로 어우른다.





셋째, 사무공간 내 특화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Vertical Deck'이다. 업무기능과 더불어 휴게실, 취침실, 그리고 Refresh zone'의 역할을 하며 2개 층을 연결하여 수직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게끔 해주고 있다. 건물 내부에 수직으로 개방된 열린 공간은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 만 아니라 자연 채광을 실내의 깊은 곳까지 끌어 들임으로써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였다.

넷째,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넥슨인들을 위해 개방된 '넥슨다방' 공간이다. 엄정한 로고스의 공간과 유머러스하고 자유로운 파토스의 공간으로 분화된다.

첫 번째 홀은 무채색조의 톤과 깊이가 다른 'L'자 부스와 밝은 화이트 우드플로링 부스를 병렬 배치하여, 반복과 리듬을 공간에 부여하였다. 거대한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흥미와 체험을 (Fun & Play) 기반으로 하는 두 번째 홀이 등장한다. 첫 번째 홀과 대비되는 자유로운 형태와 컬러의 가구들이 공간을 구성한다.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있는 휴게 공간(Chill out spot), 그룹회의 (Break-out & Group meeting)를 할 수 있는 카우치 미팅 스팟 (Couch meeting spot), 다용도의 거대한 테이블 등을 구성하여 공간의 다양성과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였다. 표피의 화려함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과 문화의 기반이 되는 공간. 넥슨의 판교사옥은 이를 위한 초석(Cornerstone)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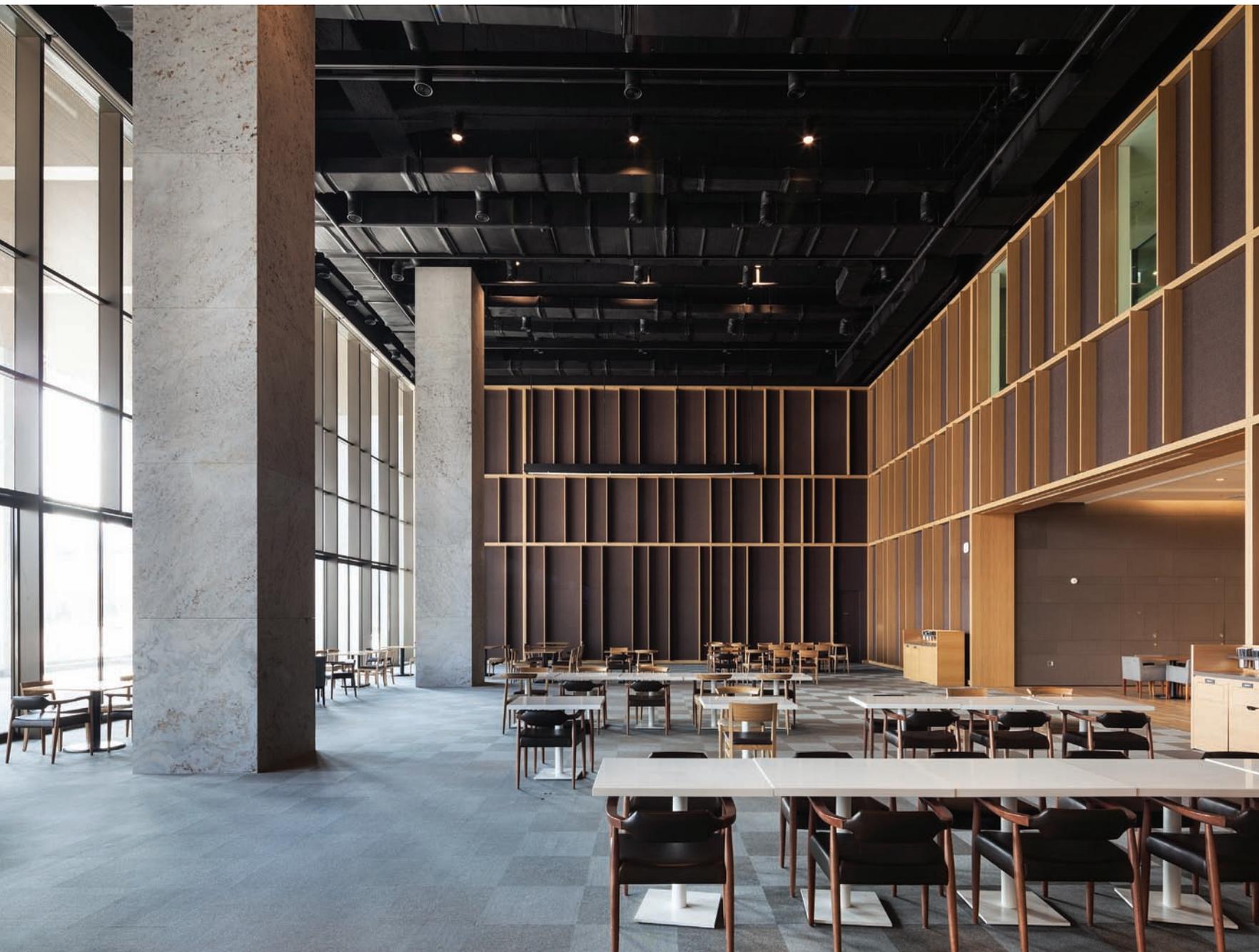
OFFICE
DESIGN
COMPANY

→ 네오위즈 NEOWIZ

설계 다원디자인 / 남용식, 유민상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7 B5F~11F
면적 30,000㎡
바닥 대리석
벽체 대리석, 무늬목
천장 무늬목, 바리솔



네오위즈는 설계단계에서 로비의 차별화를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 초기 IT회사의 첫 인상인 로비에 대하여 여러 단계의 인터뷰와 스케치 작업을 거쳐 회사의 CIE에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찾았다. 로비의 기능을 단순한 건물 1층, 보행공간, 리셉션을 넘어 직원 및 외부 손님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네오위즈의 로비는 매직박스(Magic Box)다.” 로비는 콘텐츠, 재미 요소, 유용성을 함께 지녔다. 로비는 인포메이션 기능을 하는 디지털 박스(Digital Box), 네오위즈를 홍보하는 미디어 박스(Media Box), 콘텐츠를 보여주는 브랜딩 박스(Branding Box), 게임과 F&B 프로그램을 가진 펀 박스(Fun Box), 라운지를 웰컴 박스(Welcome Box)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운영에 따라 각 박스들이 조합을 하여 오픈 홀(Open Hall)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부여하였다. 로비 콘셉트는 사무공간으로 이어져 모든 직원들이 12가지 업무 스타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 디자인하여 기업문화를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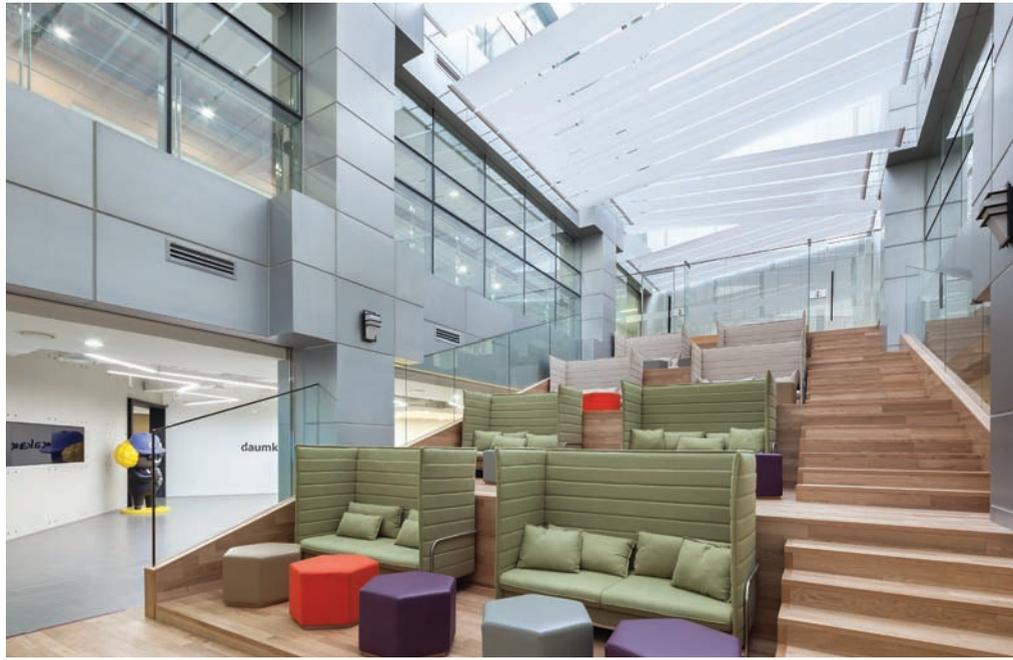
OFFICE
DESIGN
COMPANY

→ 카카오 사옥 KAKAO HQ

설계 다원디자인 / 김주상, 박미경
시공 다원디자인 / 이철희, 박준서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H스퀘어 7F, 8F, 10F
면적 14,850㎡
바닥 P-타일, 카펫타일
벽체 도장
천장 노출



다음카카오 사옥은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면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3개 층을 추가로 확장한 프로젝트로, 많아지고 다양한 오피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3가지 룰을 적용했다. 첫 번째 룰은 만나게 하라. 즉 서로 다른 조직, 서로 다른 문화가 사람 더 많이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룰은 코드를 적용하라. 넓어지고 복잡해진 오피스를 쉽게 찾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층별로 같은 위치에 같은 기능을 배치하고 컬러 코드를 적용했다. 마지막 세 번째 룰은 공간 내 경험의 확대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오피스에서 보내게 된다. 따라서 업무환경이 사용자에게 친숙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일상을 담은 공간으로 배치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였다.



OFFICE
DESIGN
COMPANY

→ **세스코** CESCO TOUCH CENTER

설계 다원디자인 / 김주상, 진영삼
시공 다원디자인 / 이태웅, 황태경
위치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B6F~12F(강일동 첨단업무지구)
면적 24,241㎡
바닥 대리석, 우드플로링
벽체 무늬목, 스틸발색
천장 도장





세스코 터치 센터는 세계적인 생활환경위생 전문기업으로 R&D 센터를 비롯한 첨단 시설을 갖춘 세스코의 신사옥으로 강일동 첨단업무지구에 위치해 있다. 세스코의 새로운 브랜딩(RE-Branding)을 의미하는 부활(RE-Birth)을 콘셉트로 기능에 충실하면서 주어진 공간과 흥미로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통을 하려고 하였다.

1F 로비는 기업의 Identity를 품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임과 더불어 Sky Folding System을 적용하여, 로비의 기능 외에 전체회의나 강연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 직원식당은 공간 전반에 걸쳐 자연소재의 물성을 살리는 마감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식사시간 외의 시간은 소모임, Party 등이 가능한 배치로 디자인되어 특별함과 실용성을 가진 복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임원 회의실은 홀 공간의 시각적 개방감을 주기 위해 평상시에는 벽면 전체가 모두 개폐가 가능한 swing door system을 사용하여 공간이 최대한으로 넓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대리석 마감재의 고급스러움과 door의 발색 금속의 세련된 느낌은 전체 공간에서 색의 대비를 이루어 또 다른 느낌의 고급스럽고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였다. 고층부 공용부를 연결하는 원형 나선형 계단은 계단 옆에 위치하고 있는 수공간과 어우러져 더욱 편안하고 부드러운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OFFICE
DESIGN
COMPANY

→ **세아그룹** SEAH

설계 다원디자인 / 조서윤, 김주상

시공 다원디자인 / 전기승

위치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B4F~B3F, 1F~5F, 22F~32F

면적 12,900㎡

마감재 대리석, 스틸 발색, 안티스타코 도장, U 글라스, 도장





철강, IT, Service를 아우르는 세아그룹의 신사옥 프로젝트는 세아그룹의 가치를 찾아 그 스토리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세아의 대표적인 회사인 철강, IT 등 대외적인 이미지는 이성적, 합리적이고 다소 차가운 느낌이지만 창업주를 비롯한 회사의 분위기는 예술작품에 관심도 많고 감성적인 회사다. 이성, 정도로 대표되는 세아그룹의 기존 이미지와 이에 상반되는 감성+상상의 요소를 공간에 적절히 밸런스를 맞추어 적용하여 세아그룹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었다. 1층의 로비는 세아그룹의 주요 생산품인 스틸로 벽을 강조하였으며 U글라스를 사용하여 외부의 빛도 최대한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또한 파이프를 차용한 파이프 오르간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도 적용하여 예술적 감성을 극대화시켰다. 30층의 통합 미팅존은 "CULTURE FORUM"이라는 콘셉트로 회의공간 내부에 아트워크와 개성 있는 가구를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세련된 감성적인 세아만의 통합 미팅존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